

##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은 1894년에 건설된 이후, 셋타야 지구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양조장은 약주 제조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전성기에는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에서 만들어진 사프란주는 일본 전역에 퍼졌고, 멀리 하와이에까지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당시의 건물과 석축은 국가 등록 유형문화재로 보존되어 있으며, 옛 창고는 방문객들이 그 역사에 대해 배우고 지역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창업자인 요시자와 니타로(1863~1941년)는 독특한 감성과 웅장한 구상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는 기능을 중시한 시설이었을 건물을, 그의 다채롭고 창의적인 취미를 반영한 호화롭고 색채감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거기에 실무적인 작업 환경도 접목한 복합적인 시설로 완성했습니다.



## 창설자

요시자와 니타로는 조묘무라(定明村, 현재의 나가오카시 미야우치 지구)에 있는 농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7세에 약방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한방약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쌓아왔습니다. 21세 때, 오랜 세월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비전주로 알려진 자가제 사프란주를 대나무 통에 담아 약주로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1887년, 24세의 니타로는 사프란주의 제조 판매 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고 1892년에는 '기나 사프란주'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1894년에는 가게를 조묘무라에서 현재의 셋타야로 이전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모은 재산을 바탕으로,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대규모 양조장과 저택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한편으로 조경과 불꽃놀이 제작, 옛날 돈과 도검 수집 등 다양한 취미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요시자와 니타로는 1941년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현재도 구 기나 사프란주 제조 본점의 건물에는 그의 정신이 짙게 남아 있으며, 그 독특한 세계관은 '니타로 월드'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 사프란주의 특징

기나 사프란주는 사프란을 비롯한 다양한 약초 허브와 향신료를 증류 알코올에 담가 만든 시럽 상태의 리큐어입니다. 원래는 자양강장제나 만병통치약으로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현대의 사프란주는 사프란, 꿀, 대추, 정향, 시나몬, 감초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당시의 풍미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로 약간 걸쭉하고 달콤하며 꽃 같은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트레이트로 즐기는 것은 물론, 레몬즙을 섞거나 칵테일로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었지만, 현재는 주로 나가오카 지방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 본채(오모야)

본채는 원래 1894년에 점포와 주거지를 겸한 건물로 건설되었습니다. 1913년에는 후방 부분이 증축되어 건물 전체 면적은 330m<sup>2</sup>를 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도로변에 면한 가게에는 문 위에 큰 간판이 걸려있었고, 한편 안쪽에는 가족의 거처로 사용되며 호화로운 주거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역 특유의 많은 적설량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맞배지붕에 장식된 특히나 큰 귀와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이 달린 복도를 통해 부지 내에 흩어져 있는 다른 9 채의 건물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 별관(하나레자시키)

2층 건물인 별관은 1931년에 증축되어 주로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붕의 주요 용마루에는 번영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기하학적 무늬 ‘칠보’가 그려진 장식적인 도기 기와가 올려져 있습니다. 용마루의 양쪽 끝에는 길운을 가져다준다는 용과 잉어, 그리고 화재를 막아준다고 하는 사치호코(물고기처럼 생긴 상상 속 생물)가 장식 기와로서 꾸며져 있습니다.(2024년 3월 시점에는 분리해 보관 중)

내부에는 느티나무 판자로 된 복도, 우아한 벽감 기둥, 다실풍의 훌륭한 오동나무 지붕, 정교한 구미코 세공의 나무 칸막이판, 조각이 새겨진 란마(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 중 하나. 천장과 상인방<맹장지 등을 넣는 틀> 사이에 만들어진 개구부를 말하며, 바람이나 빛이 통과하도록 설치된 것), 서양식 대리석 싱크대와 도기로 된 변기, 화초와 동물이 그려진 출입구 외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곳곳에 보입니다. 게다가 요시자와 가문이 소장한 병풍 그림과 족자 등의 미술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별관은 토, 일, 공휴일에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의 일환으로 1층만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이외의 투어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원에도 창업자인 요시자와 니타로의 고집과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니타로는 정원의 설계와 장식, 유지 관리까지 관여하며 말년까지 직접 손질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일본 정원다운 구조이지만, 니타로가 직접 조각한 등롱과 조각상, 그리고 나가노현의 아사마 산에서 들여온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이탈리아풍의 동굴 등 곳곳에 자신만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식용 돌이 정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연못에는 헤엄치는 보석이라고 불리는 형형색색의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을 10m나 내뿜는 잉어 모양의 분수 등도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금속 회수령에 의해 철거되었습니다. 정원에는 당시의 독특한 특징이 여전히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부지의 다른 구역



본채와 별관, 정원, 장식적인 창고는 부지의 남동쪽에 있지만, 북동쪽은 예전에 제조 구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프란주와 포도주를 만들던 큰 건물 주위에는 쌀과 도구,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쌀 창고였던 건물이 지금은 갤러리와 상점, 이벤트 공간, 관광 안내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청 게스트의 강연을 듣거나 셋타야의 식품 생산에 대해 배우기도 하며, 명물 사프란주를 비롯한 현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